

# 그리스도의 심판이 주는 위로

김현수 (독립개신교회신학교 교수)

「휴거」라는 전도용 영화가 있다. 주님께서 갑자기 재림하시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던 사람이 휴거가 되어서 올라가고, 운전자가 사라진 자동차는 부딪혀 사고를 내는 장면이 나온다. 이 세상은 영망이 되었지만 신자들은 휴거가 되어서 이 세상의 혼란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그때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기 때문에 지금부터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고 설득한다. 한국에서도 ‘다미 선교회’라는 곳에서 1992년 10월 28일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고 하면서 신자들이 재산을 팔아서 선교부에 바치도록 하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적이 있었다.

이처럼 재림을 극적으로 묘사하면서 재림을 강조하는 주장과 달리, 재림에 대하여 무관심한 경우들도 있다. 교회사를 보면 현실이 어려울 때에는 재림을 강조하고, 평안하면 재림에 대한 소망이 약해지는 현상이 반복해서 나타난다. 재림에 대한 지나친 강조나 무시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경영보다는 자기 개인을 중심으로 재림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반복되는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2문에서는 재림을 구속 역사의 완성으로서 가르친다.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신 우리의 구속자께서 장차 심판자로서 모든 일을 완성하실 것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렇기



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하고 ‘복음의 위로’라는 관점에서 재림에 관하여 묻는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겠다.

## 1. 심판대에 서신 분이 심판주로서 오실 것을 기다림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 들어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슬픔과 핍박을 당하는 현실에 대한 것으로 대답을 시작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시지만, 때로는 그 통치의 사실이 현저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스도를 정죄했던 세상의 재판정이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신자는 여전히 고통과 고난을 겪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신자의 믿음은 결코 약하여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슬픔과 핍박과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신 사실을 생각하고(37-44문),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서 자기의 슬픔과 핍박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지옥의 고통을 받으신 사실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과 핍박은 상대화된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서 자기의 슬픔과 핍박을 이해하는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온전히 풀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 구속의 일을 이루신 어린양께서 바로 재림주이시므로 그분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은 완성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의 경영이 완성된다는 점에서 재림은 신자에게 위로가 된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것만 보더라도 우리의 구원이 확실함을 알 수 있지만,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확신을 갖게 한다. 이제 남은 것은 다시 오시는 일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 세상에서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던 신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오셔서 그 백성의 원

통함을 풀어 주시는 그날이 ‘큰 위로의 날’이다. 이것이 위로가 되는 이유는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세상의 법정에서 나에 대한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분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위로의 복음이다. 따라서 신자는 주님의 재림을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 역사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그 일을 간절히 소망한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은 신자들의 생활 전체를 이끌고 나가는 ‘산 소망’인 것이다(벧전 1:3).

## 2.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복이 되는 재림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도신경은 그리스도께서 “살아 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라고 고백한다. 그런데 여기서 ‘살아 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과 죽어 묻힌 상태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는 살



아있는 사람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 올리어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살전 4:15-17).

그리스도께서는 큰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며, 그날에는 역사상 존재하였던 모든 죽은 자들과 살아 있는 자들이 그분 앞에 모일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그들을 나누실 것이다(마 25:32).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은 심판하시기 위함이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히 9:27). 그날에는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죽었던 사람들까지도 다시 일으켜서 심판하실 것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려라. (계 20:12-15)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후 5:10).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면 아무도 거짓말을 하지 못하고 거짓 증거를 제시할 수도 없다. 주님 앞에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기 때문이고(히 4:13), 어둠 속에 감추어 두었던 것이든 마음 깊은 곳에 품었던 뜻이든 모두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이다(고전 4:5). 자신이 했던 무익한 말들에 대하여서도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마 12:36).

### 주님의 모든 원수들과 택하신 자들

52문에서는 주님의 모든 원수와 주님의 택하신 자들이 대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택함을 받은” 자가 사람이듯이, “그의 모든 원수”도 단순히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이 부분의 증거본문인 마태복음 25:41에서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

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마귀와 그 사자들” 및 그들에게 속한 자들이 주님의 원수로서 주님의 경영에 반대하고 악행(作惡)하는 자들임을 알 수 있다. 요리문답 127문에서는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지적하고 있다.

불신자를 원수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이 주님의 원수임을 알 때에, 우리는 사탄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도 바르게 대할 줄을 알게 된다. 그 사람 자체가 원수라고 생각하여서 미워하는 단순함을 피하게 되고, 그가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처지를 바르게 보면서 때로는 그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신령한 분별력이 필요하다.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로 나뉘는 기준은 ‘주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마 25:40)이다. 단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일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구비해 주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지칭하는 대상은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인자께서 ‘나의 형제’라고 부르시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다. 인자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나라로 부르신 사람들이 있는데, 믿음이 있어서 그러한 자들을 알아보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도와주면 그것은 그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인자께서는 참과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에게 영생과 평강을 주시는 것이고(롬 2:7), 주의 오른편에 있는 이들의 선행을 들어서 왼편에 있는 자들의 변명이 근거가 없음을 입증하는 데 사용하실 것이다(마 25:40, 45).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뉜다. 이것은 착한 청지기는 주인이 오시기를 바라지만 악한 종은 주인이 오시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비슷하다.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3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그러므로 이 재판을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불경건한 자

에게는 매우 무섭고 두려운 것이지만, 경건하고 선택된 자들에게는 가장 소망하고 위로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그들의 완전한 구원이 성취될 것이며, 그들이 짊어져야 했던 수고와 어려움의 열매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하늘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빌 3:20). 성도는 지금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가리어졌던 것처럼, 신자들도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영광스러운 사실이 가리어져 있다. 그러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밝히 나타내실 때에는 그분과 함께 신자들도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그렇기에 그들은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머리 들어 기다리는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간다(골 3:1-4). 그들은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면서 어린양의 혼인 잔치를 소망한다(계 6:10).

그러나 어린양이 다시 오시는 것을 죽기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세상의 좋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그날을 피하려고 한다. 바위에 압사를 당해서라도 그 심판을 피하기를 원한다. 바위에 압사를 당하는 것은 큰 고통

이지만, 그들은 차라리 그 고통을 택하려 한다. 그러나 바위에 압사를 당해도 어린양의 진노를 피할 수는 없다(계 6:15-17; 사 2:19-21).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큰 영광이 될 것이다. 성도 개개인뿐 아니라 전체 성도를 위해서도 큰 영광이 된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몸을 입히실 것이고 그들을 ‘공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실 것이다. 성도들이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이다. 구원을 얻은 자답게 이 세상에 살 때부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영생과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롬 2:7, 10).

### 3. 그리스도의 재림 - 위로의 복음

52문에서는 주님의 재림이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하고 묻는다. 주님의 재림을 두려운 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요리문답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고 가르친다. 우리 주위에서는 재림을 주관적으로 이해하거나 또한 숫자 계산식으로 선전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 또한 그것에 대한 반발로, 혹은 장래의 일은 우리가 잘 알 수 없다는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서 재림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사도신경에서는 재림을 주님의 경영이 완

**금년은 휴거의 해**  
10월 28일 14시를 기억하세요.

◉ 두 번째 로렐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니깅로 권이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라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구름속으로 같이 올림...(살전 4 : 16-17)  
 ◉ 그 밤에 두 남자가 한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베를 갖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짐을 당할 것이다...(눅17 : 14)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다미 선교회'가 선전한 팸플렛

성되는 단계로서 가르쳐 준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그분의 택하신 자들에 대한 경영이 완성되는 때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이다. 따라서 그 언약 안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원수가 곧 자신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가 곧 자기의 친구가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자신의 친구로 삼고, 그리스도의 원수를 자기의 원수로 생각하며, 동시에 세상에 대하여서도 염세적이거나 현세적인 데로 빠지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놓치면 한쪽으로 치우치기 마련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복스러운 소망이지만, 이 땅에서 현세적으로 치우친 결과 정작 그날에는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될 사람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재판장이신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신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날이 닥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눅 21:34).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이다(약 5:9).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졌는지를 판별하는 좋은 시금석이 있다. 그것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라는 말에 표현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여기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또한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하는 표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기쁨으로 여기는가가 중요한 기준이다.

생활의 태도가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원수도 없고 친구도 없는 법이다. 이러한 사람은 어느 세상에 속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오른편 인지 왼편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살아야 복스러운 소망을

찾고 살 수 있을 것이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마라나타”의 기도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곳에서는 신앙도 침체된다. 16세기의 개혁자 칼빈은 베드로후서 3:4의 주석에서 재림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사단이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을 파괴할 때,  
그는 교회의 목구멍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글 | 김현수

총신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였고 기독교학문연구회 간사와 총무를 역임하였다. 이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네덜란드 아펠도른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대전성은교회에서 목회하였다(1997-2010). 2010년 이후에는 독립개신교회 신학교에서 교의학과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권, 『시편과 그리스도의 고난』, 『시편과 그리스도의 영광』 등이 있고, 역서로는 제임스 사이어의 『기독교세계관과 현대사상』 등이 있다.